

출산 후 성생활 1

출산 후 멀어진 남편



강 동 우
성의학전문의



출산 후 섹스리스 문제로 성 의학 클리닉을 찾는 부부들은 어느 국가와 문화를 막론하고 꽤 있다. 이러한 문제는 출산 후 변화된 아내의 몸과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출산 후 변화된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다.

“임신했을 때도 남편은 제게 너무나 무관심했어요. 어떤 땐 내 몸매가 망가져서 그런가 자책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땐 이 사람한테만 여자가 생겼나 고민했던 적도 있었어요. 출산 후에는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돌이 될 때까지 애 키운다고 정신없이 바빠서 부부생활은 뒷전이었고, 지금은 여유가 있는데도 남편은 부부생활엔 관심조차 없어요.”

출산 후 ‘친구’ 같은 부부이지 연인이나 남편란 느낌은 사라진지 오래인 부부, 섹스리스 문제에 빠져서 서로 ‘소 담보듯’ 한 사이의 부부가 왜 많은 것일

까. 이와 관련한 문제는 부부사이의 인간관계, 신체상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아이 양육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개입될 수 있고, 이런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도 많다. 우선 출산 후 무언가가 바뀐 남편의 문제를 훑어보자.

♡ 심리적 부담감과 회피

왜 남성들은 출산 후 아내에게 관심이 식어버릴까? 단순히 아내의 외모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일까? 대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우선 심리적으로 보자면 이미 남성이 여성에 대한 소유욕/정복욕이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로 공식화되었고, 덧붙여 아이까지 나왔으니 가시적인 산물(産物)까지 생겨서 기쁘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구속감이 부담으로 와닿게 된다. 따라서 남녀 사이의 그 묘한 긴장감과 흥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쳇말로 ‘잡은 고기에 먹이 안 준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단순한 해석만으로 우리의 삶을 단정짓는 것은 참으로 허무하다.

좀더 깊이있는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아이를 낳은 아내의 모습은 남편의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모성위주의 이미지로 변모하는데, 이런 이미지가 남편의 무의식세계에서 아내를 성적 대상보다는 ‘마돈나’, 즉 신성한 어머니의 의미로 바뀌는 것이다.

이 점이 과거의 육욕위주의 성행위에 대해 남편이 다소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행한다는 불안이 아내와의 성생활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게 할 때도 있다는 뜻이다.

심리적인 부분의 또다른 축은, 아내에 덧붙여 2세까지 양육해야 하는 가족구조가 남성에게 책임의식과 불안감을 자극하여 성욕해소보다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성으로 점점 변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나마 성실한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하니 나무랄 수 만은 없지만,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바로 좀더 동물적인 생식 본능이 또다른 암컷을 찾게 만드는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가진 남편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흔히 ‘쿨리지 효과’로 표현되기도 한다.

♡ 질근육의 탄력성 문제

이번엔 출산 후 섹시리스에서 육체적인 문제를 훑어보자. 실제로 앞서 언급한 심리적 문제가 뚜렷하지 않는데도 아내에게 무관심해져버린 남편들도 꽤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출산 후 몇번 성행위를 해보니 ‘아내가 좀 바뀐 것 같고, 행위 중에 별로 즐거운 감각이 없다’ 라는 하소연을 하는 남성들이 있다.

즉,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 질주위의 근육이 손상되어 탄력을 잃고 적절한 조임현상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는 상대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적 쾌감도 떨어뜨린다. 이런 현상과 관련하여 단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출산으로 인해 여성

의 크기가 커져서 즐겁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틀린 얘기다. 왜냐하면 질은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기능적 공간일 뿐이지 실제 정해진 사이즈는 없다. 이는 향문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가 향문이 크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저 팔약근으로 불러우는 골반저근이 향문을 둘러싸며 그때 그때 기능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듯, 질주위의 근육도 상황에 맞게 변동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절한 탄력성에 의해 남성의 성기도 밀착감을 느낄 수 있고, 이보다 몇 배나 큰 신생아의 머리도 좁은 산도를 통과할 수 있다. 문제는 출산 과정에서 이 근육이 한마디로 과다하게 늘어나거나 회음부 절개술로 상처를 받게되면 질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만다. 즉, 질주위를 감싸고 있는 ‘골반저근’이란 근육이 적절한 탄력성을 갖도록 교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육의 탄력성을 교정시키는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이며 가장 효과적이다. 크기를 줄이겠다는 성급한 접근은 기본적인 의학적 이해와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다소 비과학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출산 후 멀어져버린 남편이 외도를 할 것이란 막연한 의심은 오히려 부부사이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고 이로 인해 파국에 치달을 수도 있다. 물론 외도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는 엄하게 다뤄야 하겠지만 무턱대고 의심하는 것은 아주 나쁘다. 이보다는 혹시 내 남편이 무언가 심적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지, 혹시 내가 출산 후 손상으로 인해 성기능이 쳐져서 남편의 만족감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호에서는 출산 후 멀어진 부부 관계를 아내측의 원인을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 🌈

